

##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8)

배 순 덕

자금성(紫禁城)은 중국 明, 清代의 궁전이다. 황제가 살았다 하여 황궁(皇宮)이라고도 하나,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나라가 멸망하자 1913년에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지금은 '고궁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일반에게 더 많이 불리워진다.

여의도의 두배정도 되는 72만 제곱미터의 넓이에 장방형, 높이 10미터의 붉은 성벽 안에는 오백여년 동안 부침(浮沈)을 거듭한 영욕의 세월이 감추어져 있다.

자금성에는 모두 4개의 문이 있다.

동쪽과 서쪽, 북쪽에는 각각 동화문과 서화문, 현무문이 있고 남쪽에는 정문인 오문(午門)이 있다. 오문을 들어서면 우뚝서 있는 태화전의 웅장한 자태 사이로 퇴락한 왕조의 영화가 겹겹이 들여다 보인다.

성이 워낙 커서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안내인의 충고에 걸맞게, 城은 우선 외조(外朝)와 내정(內廷)으로 크게

나뉜다. 외조는 황제가 정무를 보며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고 내정은 황제와 황후가 일상생활을 했던 곳이다.

남북 1km의 중심선을 따라서 외조인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있고 그 뒤로도 건천궁, 교태전, 곤녕궁 등의 후3궁(後三宮)을 포함한 양심전, 동서6궁, 어화원 등의 내정이 있다.

주전인 태화전(太和殿)은 신황제의 즉위나 혼례, 탄생, 법령의 공포 등 나라의 중요한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었던 곳이고, 중화전은 외국 사신들을 맞이할 때 사용되었다.

자그마치 9천여칸이나 된다는 궁궐안의 방은 성안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하루에 한 방씩만 옮겨 자도 모두 다 거치고 나면 스물일곱살의 청년이 된다는 일화가 가히 그 규모의 방대함을 짐작케 한다.

원래 '자금'이란 두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 가지는 일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북두성을 옛날에는 ‘자이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천체를 다스리는 신(神)이 거처한다고 믿고 이의 “자”字를 따라서 북두성의 북쪽에 위치한 자금성에서 황제가 하늘나라의 뜻을 가져와 통치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왕의 신적인 권한을 당연시 여겼던 그 시대부터 자금성은 온통 누런 색깔 투성이었다. 궁궐의 기와는 당연히 국가와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뒤덮였고, 금칠한 옥좌, 금칠한 병풍, 금칠 대들보, 금칠 단청, 심지어는 밥그릇까지 금색으로 치장을 하였다.

그렇게 호화로움의 극치를 이뤘던 자금성의 주전인 태화전 주변에는 지금도 금도금을 한 커다란 향아리가 빛 바랜 모습으로 서 있다. 방화수를 담은 성 내의 삼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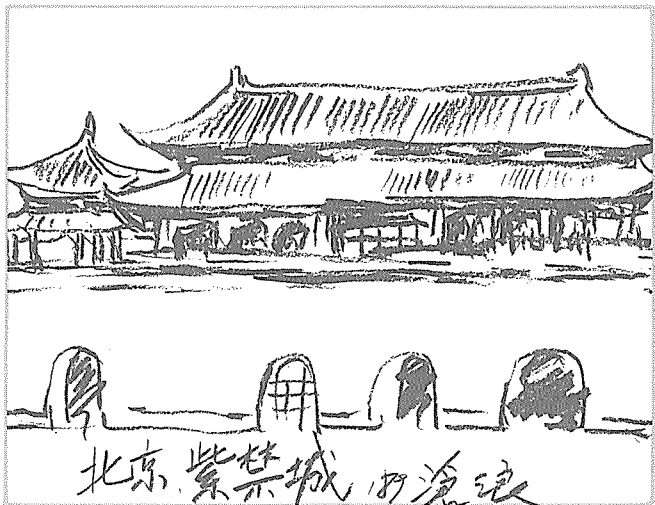
팔개의 향아리 중에 열여덟개가 금 도금이고 그 중의 두개가 바로 태화전 앞에 놓여진 것이다. 향아리에는 1900년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침입했을 때 금으로 착각하고 굵어낸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다.

백성의 고달픔보다는 대국(大國)이라는 헛된 자만심과 황제의 신적인 권위만을 고집하며, 퇴락의 길로 빠져들을 미쳐 깨닫지 못했던 왕실은 끝내 조그만 섬나라 일본과 유럽의 열강들에 의하여 갈갈이 찢기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었다.

그것이 그들이 누렸던 향락의 당연한 결과였을까마는, 지금도 성밖 경산공원(景山公園)에 남아있는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순정제(帝)가 목을 매었다는 소나무를 보면 문득 느껴지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가슴을 시리게 한다.

황제는 농민 반란군인 이자성(李自成)

▶ 북경, 자금성



에게 쫓기다가 市가 내려다 보이는 景山에서 목을 땀던 것이다.

태화전을 지나 내려오는 길에는 통짜로 된 거대한 돌 조각이 비스듬히 누워있다. 그 무게가 이백톤으로, 구름 속에 용이 놀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당시에는 돌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운반할 수가 없었고 겨울이 되어서야 만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닥에 물을 부어 얼려가며 얼음 위로 운반하였다고 한다.

태화전 난간마다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용들이 하늘의 구름마냥 꿈틀거렸다. 금칠한 기둥에도 용이 아로 새겨져 있고, 그 기둥사이에 있는 옥좌에도 역시 금빛 용이 꿈틀거린다. 황제는 그 의자 위에 앉아서 수많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정무를 보았을 것이다. 누대밑 광장에는 정일품에서 종구품에 이르기까지 만조백관이 도열하여 감

히 고개한번 바로 쳐들지 못한채 황제에게 예를 올렸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황제의 얼굴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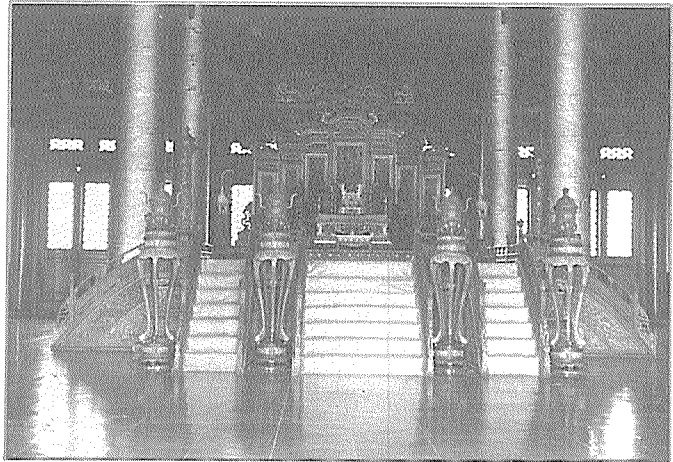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중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람객들과 외국인관광객으로 성 안은 장사진을 이룬다. 팔월의 뜨거운 퇴약별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었다. 카메라를 울러 맨 허름한 차림새의 중년, 샌달에 반바지를 걸쳐 입고 한껏 멋을 부린 젊은 여자, 허리굽은 할머니, 뒷단추를 풀어 헤친 남자, 더러는 동그란 모자에 붉은 계급장을 단 휴가 군인도 보이고 색깔과 모양새가 똑같은 정충한 한복을 차려 입은 조선족 여인들도 눈에 띈다. 그 차림새가 어설피고 촌스럽기 그지없으나 그들의 표정은 마냥 밝기만 하다.

보화전 앞에서 마주친, 연변에서 왔다는 조선족 부자(父子)에게, 일행인 7교수님

▶ 자금성의 内廷 :  
 자금성은 外朝와 内廷으로 나뉘는데, 외조는 황제가 정무를 보며 의식을 행하던 곳이고 내정은 황제와 황후, 기빈 등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다.



▶ 황제의 옥좌 ;  
 紫禁城의 주전인  
 太和殿 안에는  
 금으로 도금한  
 네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사이에  
 역시 금빛 용무늬가  
 새겨진 옥좌가 있다.



이 혈육을 만난 것 보다도 더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남녘의 구수한 사투리와 함경도 어투같은 투박한 말씨가 어울려 시간가는 줄 모른다. 낮선 땅, 낮선 시간 속에서 서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라만 보아도 흐뭇해지는 광경이었다.

보화전(保和殿) 옆 문턱은 마지막 황제 '부의'가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놀기 좋게 때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일반백성은 감히 근접할 수도 없었던 자금성의 높은 문턱이 어린 황제에게는 오히려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한 발을 내 디딜 때마다 구석구석 줄을 잇는 내시와 시녀, 친구도 없고 놀이마저도 마음놓고 행할 수 없었던 부자유한 권위가 어린 '부의'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까?

중국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궁성, 그 크기의 방대함과 화려함에 잠시 압도당했던 가슴에 한 순간 무상함이 스치고 지나간다. 자금성의 내정(內廷) 깊숙한 곳에서, 몰락한 왕조를 끌어 안고 세상의 변화를 차단당한 채 살아온 마지막 황제 '부의'의 외로운 모습이 저만치서 보이는 듯 했기 때문이다.

믿기지 않게도 그것이 불과 오십여년 전의 일이다. 71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

